

코로나 19 대응 동향

2020.4.6.
- 제11호 -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주소: 265 Melk Street, Nieuw Muckleneuk
전화: 012 460 2508
이메일: embsa@mofa.go.kr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za-ko/index.do>
페이스북: @KoreanEmbassySouthAfrica



1. 일반 동향

- ◆ 남아공 봉쇄조치(lockdown) 3.26 자정~4.16 자정
- ◆ 확진자 수 지속 증가 (4.5일 기준 확진자 1,655명)
 - 4.5(일) 기준 남아공 내 확진자 수는 총 1,655명이며, 총 누적 사망자는 11명, 현재까지 누적 검사지수는 56,873명입니다.
 - ※ 주별 확진자 통계 (전일 대비 증가자 / 사망자)

하우텡	704(△11/1)	웨스턴케이프	454(△21/2)
과줄루나탈	246(△14/7)	프리스테이트	87(△2/1)
음푸말랑가	18(△0)	노스웨스트	11(△0)
림포포	19(△1)	이스턴케이프	31(△6)
노던케이프	8(△1)	기타	77(△14)

- ◆ 노스웨스트주, 코로나 확진자 및 접촉자 보건당국 감독 하 격리 결정
 - 노스웨스트주 코로나 환자 1명이 자가격리 기간 중 자택을 벗어나 이동하여, 보건당국에서 동인을 프리스테이트주 Welkom 지역 농장까지 추적하여 발견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주 부건부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확진자들과 그들의 접촉자들을 보건부 감독 하에 격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 노스웨스트주 내 코로나19 대응 지정병원은 1곳(Klerksdrp)으로, 주 보건부는 동 병원의 시설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Orkney 지역의 Westval 병원 Stillfontein 지역의 Duff Scott 병원을 예비시설로 배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 ◆ 라미포사 대통령, 코로나 관련 국내외 조정위원회 주재
 - 라미포사 대통령은 4.4(토) 대통령주재 조정위원회(PCC) 특별회의를 소집하여 첫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적인 봉쇄령 시행 진행 상황과 문제점들을 평가하였습니다.
 - 정부는 현재까지 약 5,400명의 현장직원들이 훈련을 마치고 전국 각지에 배치되었으며,
 - 의료물품의 수출 제한 조치 외에도 현지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필수품 생산을 위한 공영기업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또한, 같은 날 라미포사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 의장국으로서 회원 10개국 보건부 장관들과의 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각국의 코로나19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사망자 감소 노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 주남아공프랑스 대사관, 프랑스 의료진들의 아프리카인들 대상 코로나 백신 임상실험 언급 관련 입장 표명
 - 프랑스 방송채널 LCI 생방송 중 프랑스인 의사 2인이 마스크, 의료품, 집중치료실이 없는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테스트하자고 제안한 내용과 관련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 주남아공 프랑스대사관은 이에 대해 매우 충격을 받았으며 해당 제안이 프랑스 정부의 입장이 아님을 표명하는 한편, 프랑스는 아프리카를 도와 코로나19 퇴치에 전념하고 있으며, G7, G20, 유럽연합 등을 통해 아프리카 대상 지원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봉쇄 조치

- ◆ 봉쇄조치 기간 중 군인 및 경찰 과잉단속 논란
 - ☞ 교민 여러분께서는 봉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주시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또한 출입 및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봉쇄조치 이후 항공편 안내
 - ☞ 봉쇄조치 종료 이후의 남아공·레소토·보츠와나·에스와티니발 한국행 항공편 운행 현황을 부록을 통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봉쇄 기간 중 범죄전수 감소
 - 남아공 경찰부 장관은 봉쇄기간 중 주류 판매 제한 등에 기인하여 강력범죄 전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 예비보고서에 따르면 봉쇄령 첫째 주 기간 동안 살인 사건은 326건에서 94건으로,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생한 폭행사건은 2,673건에서 456건, 트리오 범죄(차량납치 강도, 주거 침입 강도, 사업장 침입 강도)는 8,853건에서 2,098건으로 감소했습니다.
 - 다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GBV)의 경우 신고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 ◆ 봉쇄기간 중 결혼식 강행한 신랑신부 및 하객 체포
 - 남아공경찰은 봉쇄기간 중에 모임 및 행사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과줄루나탈주에서 결혼식을 강행한 신랑신부와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 등 5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 ◆ 림포포주, 종교단체 부활절 순례집회 연기 요청
 - Limpopo 주지사는 동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단체 ZCC의 예정된 부활절 순례집회를 연기하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 동 집회는 매년 1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결하며 이에 대해 Mathabatha 주지사는 "더 이상의 코로나19 확산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봉쇄조치 규정을 어기는 자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 출입국 관련 사항
 - (항공) 위험국 분류에 관계없이 모든 국내·국제 항공 노선 운항이 중단되었으며, 필수적인 화물 운송만 허용됩니다. 단, 고위험국에서 오는 화물은 방역이 필요합니다.
 - (해상) 모든 항만에 크루즈선 입항은 금지되며, 필수적인 화물선 입항만 허용됩니다. 단, 고위험국에서 오는 화물은 방역이 필요합니다.
 - (육로) 모든 육로 국경 통과가 금지되며, 주변국들과 꼭 필요한 물품 운송을 위한 국경 통과만 허용됩니다.

3. 경제 관련

◆ 주요 상업 시설 영업시간 안내

상업 시설	일자	시간
올위스	매일	09:00-17:00
게임	주중	09:00-17:00
	일요일	09:00-15:00
	일요일	09:00-13:00
픽엔페이	주중	09:00-18:00
	토요일	08:00-17:00
	일요일	09:00-16:00
체커스	매일	07:00-18:00
클릭스	주중	08:00-16:00
	토요일	09:00-15:00
	일/공휴일	09:00-14:00

◆ 정착 및 수자원위생부 장관, 지방정부의 물공급 중단 철회 요청

- 시수루 정착수자원위생부 장관 (Department of Human settlements, Water, Sanitation)은 웨스턴 케이프, 과줄루 나탈, 하우텡 정부가 수도요금 미납을 이유로 취한 단수조치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정책에 반한다며 즉각적인 물공급 재개를 요구하였습니다.
- 장관은 현 상황에서의 단수조치는 “손 씻기를 통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 한다며 지금은 요금 체납을 이유로 처벌할 시기가 아니라 주장하고, 정부는 물이 필요한 마을에 물탱크 보급을 통해 주민들이 규칙적으로 손 씻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웨스턴 케이프 주, 5,300만 란드 긴급식품지원 프로그램에 배정

- 웨스턴 케이프 주는 락다운으로 인해 식품(food) 확보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5,300만 란드를 긴급식품지원 프로그램에 추가적으로 배정하였습니다.
- 2,000만 란드는 5만 가구에 음식꾸러미(food parcels) 제공 (1개월간 4회), 1,500만 란드는 사회개발부를 통해 1만개의 식사 배달(1개월간), 성인 6,520명과 아동 8만명에 대한 식품공급, 1,800만 란드는 교육부를 통해 485,000명에게 take away 식사 제공(4.8-4.20일까지)을 합니다.

◆ 남아공, 신개발은행으로부터 10억불 차관 협상 진행

- 신개발은행 Leslie Maasdrorp 부회장은 남아공 재무부가 브릭스 신개발은행 (NDB)에 공식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코로나사태 대응과 관련하여 10억불 (약 190억 란드)의 차관 도입과 관련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신개발은행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 즉시 공공 의료에 투입될 1억불 차관과 하반기 남아공 경제회복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1억불 차관을 제공을 제안하여 왔습니다.
- 남아공 내무부는 신개발은행의 차관이 달려화된 차관이 되기 때문에 최근 란드화 가치의 급락, 신개발은행의 신용등급에 따른 높은 이자율 등으로 인한 국고부담 등으로 신개발은행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IMF 등의 옵션도 고려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남아공 3월, 신규차량 판매 하락

- 4.2(목) 남아공자동차제조사협회(NAAMSA)는 지난 3월 신규 차량 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29.7% 감소한 33,545대에 머물렀고, 차량대별로 소형상업차량은 37.1 %, 중형상업차량은 18.8%, 대형상업차량은 18.6%, 승용차는 26.8% 각각 판매량 감소와 더불어 수출 또한 21.5% 감소하였습니다.
- 차량 할부 전문 금융기관인 웨스뱅크(Wesbank) 발표에 따르면, 3월 중 소형상업용 차량 판매 순위는 토요타 힐릭스 (2,729대), 포드 레인저(1,263대), 토요타 하이에이스(1,120)이며, 승용차는 폭스바겐 폴로 (2,116), 폭스바겐 비보(1,561), 토요타 포츠너(1,168) 순입니다.
- 차량판매 실적은 16일 락다운을 실시하는 4월 최악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와인산업계 봉쇄조치 기간 동안 수출허용 요청

- 세계 8대 와인 수출국 가운데 유일하게 봉쇄조치로 인하여 국내 주류소비 금지와 와인수출 금지로 내외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남아공 와인산업계는 정부에 공식서한을 보내어 완성된 와인의 수출허용을 요청하고 봉쇄조치로 인하여 와인산업이 붕괴되고 있다고 탄원하였습니다.
- 식품 및 농산품 정책위원회 (Bureau for Food and Agricultural Policy)는 봉쇄조치로 인하여 와인 연매출의 최대 40%까지 손실을 예상하였고, 와인산업계는 완성된 와인제품만이라도 수출 허용과 수출항인 케이프타운 항구 운영의 60%까지 정상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와인 내수는 코로나사태가 시작된 12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특히 작년 가뭄으로 인한 수확량 저조, 정부의 와인수출 금지 정책 등으로 봉쇄조치 이후 일부 농장의 파산 및 직간접으로 고용된 25만명의 근로자들 가운데 수천의 실업자 발생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4. 영사 관련

◆ 봉쇄조치 중 항공편 운항 예외 안내

- 락다운 기간 중에는 재난관리법에 따라 필수품 및 필수서비스 공급과 분배에 관계되는 공·사기관을 제외한 모든 인적 및 물적 이동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필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버스, 택시, 우버 등의 서비스 및 개인차량을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 서비스가 금지되며, 여기에는 해상 및 항공 승객 운송도 포함됩니다.
- 관광업은 필수서비스가 아니므로 락다운 기간 중 모든 상업용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며, 신규 예약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화요일 Fikile Mabalula 교통부장관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해외에 있는 남아공 국민을 송환하기 위해 남아공 당국이 허가한 항공기
- 남아공으로부터 각국으로 자국민을 이송하기 위해 어떤 조건 하에 허락된 항공기
- 락다운 해제 후의 남아공발 국제선 운항 재개 일정은 관계기관의 추가 통지가 있거나 항공권 신규 예약이 가능해질 때까지 파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 한국 입국자 자가격리 지침 위반시 처벌 강화(4.5.부터)

- 4.1.(수)부터 모든 한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되었으나 지정된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 지난 4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3만7248명이며, 이들 가운데 해외에서 들어와 격리 중인 사람은 약 3만명입니다. 지난달 13일 이후 현재까지 적발된 자가격리 위반 건수는 137건으로 하루 평균 6.4명이 지침을 어겼다고 합니다.
- 당국은 해외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GISGIS(지리정보시스템) 통합상황판 등을 활용해 감시체계를 유지합니다. 무단이탈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고발 조치가 이뤄지며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 및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됩니다.
- 4.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도 강화되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걸림국 동향

◆ 레소토

- (확진자 미발생) 현재까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국경 통제) 3.29.자정부터 4.21.까지 봉쇄조치 시행으로 필수품 운송 및 필수 서비스 제공 인력 외 레소토와 남아공 간 모든 국경이 봉쇄됩니다.

◆ 보츠와나

- (확진자 동향) 4.5 기준 확진자 6명(사망자 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 추가 확진자 2명은 에티오피아 항공을 통해 영국에서 3.21 귀국한 27세 남성과 여성 동반자로, 동인의 접촉자 46명에 대한 추적 관찰중
- 확진자 5명은 안정적 상태로 Sir Ketumile Masire Training Hospital in Gaborone에서 치료중 (현재까지 291명 자가 격리, 2001명 의무 격리 조치)
- (락다운 조치 실시) 4.2 자정부터 4.30 자정까지 28일간 락다운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비상수권법 규정을 관보에 4.2 게재하였습니다.
- 자택(마당 공간 포함) 원격근무 원칙, 08:00-20:00 근거리 필수재 구입을 위한 이동은 허용(식당은 10:00-20:00 테이크어웨이 영업만 허용)
- 위반시 5천볼라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 예외적인 이동 신고서(Form A) 및 필수 서비스 제공자 양식(Form B) 게재
- 3.11 이후 고위험국 출발 또는 경유한 입국자중 격리조치를 받지 않았을 경우 5일내 신고 의무
- 학교 및 술집 운영 중단, 비자 서비스 중단

◆ 에스와티니

- (확진자) 3.31(화) 기준 에스와티니 내 확진자 수는 총 9명
- (부분적 봉쇄 조치) 에스와티니 정부는 3.27.(금)부터 20일간 부분 봉쇄조치를 시행중입니다. 봉쇄 기간 동안에는 필수 서비스 관련 사업장 운영 및 필수품 운송을 위한 국경 이동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발행한 허가증(permit)이 요구됩니다.
- 현지 언론은 락다운에 따른 외부이동 및 대중교통 제한 등으로 인해 길거리를 통행하는 인원이 감소하면서 길거리 노점상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국경 통제) 3.27.부터 20일간 부분 봉쇄조치로 인해 에스와티니 국민 및 합법적 거주자들만 국경 통과가 가능하나, 의무적으로 14일간 격리 조치가 수반됩니다.

6.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 동향

◆ 국내 확진자 동향

- 4.6(월) 00시 기준, 국내 확진자 수는 총 10,284명(해외유입 769명*), 사망 186명이며, 총 누적 검사자 수는 466,804명입니다.

※ 5일 0시 기준 추가확진 81명 중 40명, 6일 0시 기준 추가확진 47명 중 16명이 해외 유입케이스로 각각 49.4%, 35%에 육박하였습니다. 해외입국자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 우리 정부 주요 정책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예방 대책 추진방안」을 마련, 시행합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인력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더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까지 확인된 의료기관 종사가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241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2.4% 수준입니다. (이탈리아 9.1%, 스페인 15.5%)
- 해외입국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 논의
 -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세계입국자 14일 자가격리가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의 자가격리자 관리부담이 커지고, 지정된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3만7천여명, 지침 위반자 137명)
 - 중대본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조직을 두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무단 이탈자 다중 감시체계)하고,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이탈자에 대한 △주민신고제도도 운영합니다.

◆ 국제사회 동향

-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일 오후 5시 기준 120만 3923명, 사망자 수는 6만 479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미국은 최대 확진자국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무려 31만 2237명을 기록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확진자 뿐만 아니라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날까지 총 7,57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사망률이 8.3%에 달합니다.
 - 최근 들어 눈에 띄게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넘었으며 도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 중입니다.



- 코로나19에 맞닥뜨린 세계 각국이 마스크와 인공호흡기 확보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프랑스에선 ‘마스크와의 전쟁’, ‘글로벌 보물 사냥’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 불과 1~2주 전까지만 해도 대중적인 마스크 착용에 회의적이던 미국과 유럽이 마스크의 ‘바이러스 차단 효과’를 인정하고 적극 권장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면서, 마스크가 전통적 동맹 관계까지 흔드는 모양새입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자국 기업들에 대해 ‘보복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 ‘집단 면역’ 실험중인 스웨덴, 확산세 급증에 ‘봉쇄’로 U턴 검토
 -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집단 면역’ 전략을 선택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스웨덴 정부가 결국 정책 전환을 검토하고 이동 제한과 공공생활 규제 같은 정책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 2.15. 첫 감염자가 확인된 스웨덴의 전체 확진자 수는 지난달 4일만 해도 52명에 그쳤으나, 이달 4일 기준 총 감염자는 6,443명으로 한 달 만에 약 124배나 늘었습니다. 이 중 2,996명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 상기 QR 코드를 통해 우리 대사관의 페이스북에 접속, 관련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 방법

- ① iOS : 카메라 실행 후 상기 이미지 스캔
- ② 안드로이드 : 플레이스토어 내 QR 코드 관련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실행 후 상기 이미지 스캔

혹시 주변에 대사관 소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경우, 적극 전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항공편 정보 ①】

도시 \ 일자		4.17(금)	4.18(토)	4.19(일)	4.20(월)	4.21(화)
요하네스버그	①	13:45 조벽 출발(카타르) 23:35 도하 도착	02:00 도하 출발(카타르) 16:55 인천 도착			
	②		14:10 조벽 출발 (에티오피아) 20:25 아디스아바바 도착 22:45 아디스아바바 출발 (에티오피아)	16:15 인천 도착		
케이프타운	①	18:40 CPT 출발(카타르)	05:55 도하 도착	02:00 도하 출발(카타르) 16:55 인천 도착		
	②			18:40 CPT 출발(카타르)	05:55 도하 도착	02:00 도하 출발(카타르) 16:55 인천 도착
더반	①			16:00 더반 출발(영국) 17:05 조벽 도착	13:45 조벽 출발(카타르) 23:35 도하 도착	02:00 도하 출발(카타르) 16:55 인천 도착
	②			16:00 더반 출발(영국) 17:05 조벽 도착 19:00 조벽 출발(루프트)	05:35 프랑크푸르트 도착 18:30 프랑크푸르트 출발 (아시아나)	11:50 인천 도착

- 소요시간·항공표 등을 고려한 출발도시별 최적 항공편 2개 / 괄호 안은 항공사 이름
- 봉쇄조치 기간 연장, 항공사 사정 등에 따라 예약 및 발권된 항공권도 취소 가능성 존재
- 경유지 참고사항(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 www.0404.go.kr)
 - 도하 : 3.16.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경유 승객 제외)
 - 아디스아바바 : 3.23.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격리(Ethiopian Skylight Hotel, 비용 자부담)
- ※ 14일 격리조치는 환승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연결 항공편에 탑승할 때까지 Ethiopian Skylight Hotel에 머물게 됨

혹시 주변에 대사관 소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경우, 적극 전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항공편 정보 ②】

보츠와나	4.30(목)	5.1(목)	
	① 10:00 가보로네 출발(보츠와나) 11:00 조벽 도착 13:45 조벽 출발(카타르) 23:35 도하 도착	02:00 도하 출발(카타르) 16:55 인천 도착	
	4.30(목)	5.1(금)	5.2(토)
	② 16:30 가보로네 출발(보츠와나) 17:30 조벽 도착	09:35 조벽 출발(에티하드) 19:40 아부다비 도착 22:10 아부다비 출발(에티하드)	11:40 인천 도착
레소토	4.23(목)	4.24(금)	4.25(토)
	16:25 마세루 출발(에어링크) 17:35 조벽 도착	13:45 조벽 출발(카타르) 23:35 도하 도착	02:00 도하 출발(카타르) 16:55 인천 도착
에스와티니	4.20(월)	4.21(화)	4.22(수)
	17:25 만지니 출발(에어링크) 18:20 조벽 도착	13:45 조벽 출발(카타르) 23:35 도하 도착	02:00 도하 출발(카타르) 16:55 인천 도착

- 소요시간·항공표 등을 고려한 출발도시별 최적 항공편 2개(단, 레소토·에스와티니는 현재 1개만 검색 가능)
- 괄호 안은 항공사 이름
- 봉쇄조치 기간 연장, 항공사 사정 등에 따라 예약 및 발권된 항공권도 취소 가능성 존재
- 경유지 참고사항(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 www.0404.go.kr)
 - 도하 : 3.16.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경유 승객 제외)
 - 아부다비 : 3.25.부터 2주간 모든 이착륙 및 환승 여객기 운항 중단

혹시 주변에 대사관 소식지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경우, 적극 전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